

보도	2025.5.16.(금) 조간	배포	2025.5.14.(수)	
담당부서	감독총괄국 감독혁신조정팀	책임자	국 장	김충진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최범전 (02-3145-8310)

주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

- ◆ 성과보수의 **형식적 이연**, 내규상 **조정·환수** 관련 규정 불명확, **주주 통제** 및 **보수위원회 운영 미흡** 등 다수 문제점을 확인
- ◆ 금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**중점 점검 기본 방향**을 수립하여 성과보수 관련 **불합리한 관행**을 개선해나갈 계획

I. 추진 배경

- 최근 국회·언론 등에서는 금융회사가 부동산PF 부실*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여 왔으며

*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(%): ('23.12말) 2.70 ('24.6말) 3.56 ('24.12말) 3.42

- 그간 검사 과정에서도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다수의 지적 사례가 발생해온 바 있습니다.

-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,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건전한 보수체계를 마련할 것을 규정*한 당초 지배구조 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

* 성과보수 이연지급, 보수위원회 운영,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 등

- 금융당국은 全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·조정·환수 현황, 보수위원회 운영현황 등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.

Ⅱ. 현황

◆ (분석대상)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 금융회사* 및 소속 임직원**

* 자산총액 5조원[†] 이상 금융회사(상장사는 2조원 이상) (시행령 §6③)

† 저축은행은 7천억원 이상, 금융투자회사 등은 운용자산 20조원 이상도 추가 포함

** 임원[†], 금융투자업무담당자(보수체계 마련 및 이연지급 의무 대상) (시행령 §17①·②)

† 사외이사, 비상임이사, 감사위원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

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 금융회사 현황

(단위 : 개사)

구분	은행	금융투자	보험사	저축은행	여전사	지주	합계
대상회사	19	37	30	32	25	10	153

가 성과보수 발생* 현황

* '23년(까지)의 성과에 대해 '24년초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새로 발생시킨 성과보수

□ (성과보수 총액) '23년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 645억원으로 '22년(1조 1,677억원) 대비 △8.8% 감소하였습니다.

-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6,603억원('22년 대비 △9.5%)으로 가장 많고, 다음은 은행 1,591억원(+8.3%), 보험 1,426억원(△18.0%), 여전 598억원(△12.2%) 등의 順으로 나타났습니다.

금융권 성과보수 발생 현황('21~'23)

(단위 : 억원, %)

권역 \ 연도	'21년	'22년	'23년	(전년대비(%))
은행	1,589	1,468	1,591	(8.3)
금융투자	11,973	7,292	6,603	(△9.5)
보험사	1,134	1,739	1,426	(△18.0)
저축은행	228	182	44	(△75.8)
여전사	602	681	598	(△12.2)
지주	405	315	383	(21.6)
전체	15,931	11,677	10,645	(△8.8)

□ **(성과보수 평균)** '23년 금융회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.39억원으로 '22년(1.94억원) 대비 △28.5% 감소하였습니다.

- 임직원별로 살펴보면, 대표이사 3.8억원(△20.3%), 기타 임원 2.0억원(△17.3%),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.9억원(△32.0%) 順이며

※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

-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금융권역별로 비교해보면, 지주 10.0억원(+1.4%), 은행 6.0억원(+5.4%), 보험 4.2억원(△5.8%), 금융투자 4.2억원(△33.6%), 여전 3.2억원(△25.0%), 저축은행 0.4억원(△78.5%) 順으로 나타납니다.

□ **(지급형태)** '23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형태*는 현금 66.8%,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20.6%, 기타 12.6% 順입니다.

* 금융회사는 성과보수의 장기성과 연계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(감독규정 §9③2)

- 현금 지급비중은 여전(82.6%), 저축은행(80.0%), 금융투자(75.1%) 업권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,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지급 비중은 지주(50.2%), 은행(39.8%) 업권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
나 성과보수 이연 현황

※ 지배구조법 시행령(시행령§17③2)은 성과보수의 40% 이상에 대하여 이연(移延)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

□ **(이연비중)** '23년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평균 이연 지급 비중은 52.2%입니다.

- 금융권역별로는 저축은행 91.0%, 보험 66.6%, 지주 59.1%, 여전 50.8%, 은행 49.9%, 금융투자 49.0% 順으로 나타났습니다.

□ **(이연기간)** 대부분 금융회사(71.2%)가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 중이며 4년은 19.6%, 5년 이상은 9.2% 수준입니다.

- 금융권역별 평균 이연기간은 은행·지주 3.6년, 금융투자 3.5년, 여전 3.4년, 보험 3.3년, 저축은행 3.2년 順입니다.

다 성과보수 조정·환수 현황

□ **(성과보수 조정)** '24년 중 직·간접적 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은 5,765억원이며, 이 중 실제 조정된 금액은 △568억원입니다.

- 재산정(△322억원), 지급유보(△236억원), 환수(△0.9억원) 등 직접적 조정*에 따른 금액은 △559억원, 주가변동 등 간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은 △9억원 수준입니다.

* (재산정) 향후 지급예정액에 대한 규모 조정(예: 부동산PF 손실 등에 따른 성과보수액 일부 삭감)
(지급유보) 향후 지급예정액에 대한 지급 시기 조정(예: 감독원 검사 진행 등으로 성과보수액 지급 중단)
(환수) 과거 기지급금에 대한 규모 조정(예: 임직원 관련 소송 패소 확정 등에 따른 과거 지급분 반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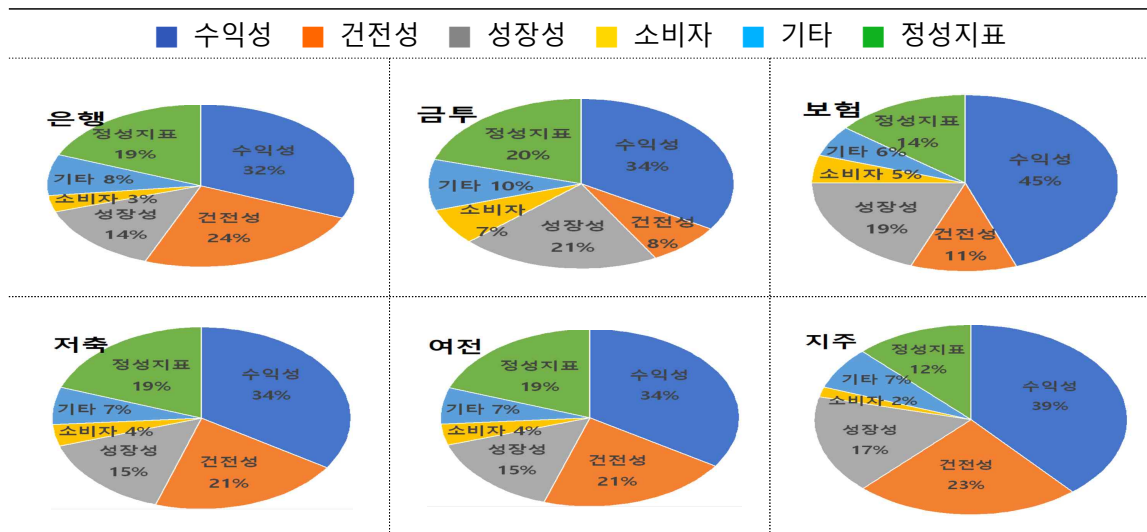
라 성과평가 방식·지표

□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는 정량지표 82.4%(수익성 37.0%, 성장성 16.9%, 건전성 16.6%, 소비자 4% 順), 정성지표* 17.6%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* 컴플라이언스,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, 그룹시너지 강화, 리스크관리, ESG실천과제 등

-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·지주·여전 등은 지표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, 보험·금융투자 등은 건전성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
금융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 현황('23년말 기준)



마

보수위원회 운영 현황

□ 금융회사(자산총액 5조원 ↑)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*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해야 합니다(법§16①4·§22①).

* 임원(사외이사, 비상임이사, 감사위원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제외)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

- 보수위원회 평균 구성 인원은 3.3인으로, 위원회 대표 및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(법§16④·⑤)
- '24년중 평균 6.4회 개최, 회의시기는 1분기(60.3%)에 집중되어 있으며
- 보수위원회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98.1%이고,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98.0% 수준입니다.

II. 문제점

1 성과보수 이연기간·비율의 획일적 설정 및 미준수

- 지배구조법 시행령(§17③2)은 관련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이연기간(3년 이상) 및 비율(40% 이상)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

- 상당수의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를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*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.

* 이연기간 최소 적용(3년) 회사 : 109개사(71.2%)

- 이로 인해 투자성의 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.

【주요 검사 지적 사례】

- ◆ (OO증권)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~2.5억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~3년간 이연 지급(연도별 0.5억원,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연도에 지급)하고 있어, 총 성과보수의 규모에 따라 최소 이연비율·기간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함(예: 총 성과보수가 1.5억원인 경우 33%에 해당하는 0.5억을 1년 동안만 이연 지급)
- ◆ (OO증권) 금투업무담당자로 의결한 다수의 부동산PF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 전액 지급

② 내규상 성과보수 조정·환수 관련 규정 불명확 및 실제 환수 사례 미미

-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(규정 §9③2나),
 -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(규정 §9③3).
-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·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, 실제 환수 사례 또한 극히 미미*한 수준이므로,
 - * '24년 중 소 금융권 성과보수 환수액은 △0.9억원에 불과
 -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,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
【주요 검사 지적 사례】

- ◆ (OO은행) 임원 등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감독기관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성과보수를 조정하거나 유보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대한 업무상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원 등의 성과보수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우려
- ◆ (OO지주)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사유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를 인용한 선언적 규정만을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보수 조정·환수기준이 미비

③ 성과보수 관련 주주통제 미흡 및 보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

- 주총은 이사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결의하고(상법 §388),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(보수위원회)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
 - 주주가 승인한 총액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.
- 또한,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보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*되고 있어 성과보수 체계 전반 및 수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.

* (예) 찬성률 98.0% 등 반대수정의결 안건 미미, 다수 임직원에게 대한 일괄 심의 진행 등

【주요 검사 지적 사례】

- ◆ (OO캐피탈)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는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검토없이 안건을 보수위원회에 부의하는 등 사전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, 보수위원회도 임원의 특별성과급 등 성과보수 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및 과도한 외형확대에 따른 리스크 등을 충실히 심의하고 있지 않음

4 성과평가 지표 편중

-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되어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즉,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, 건전성·소비자 보호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지표가 불균형*하거나, 장기 성과지표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**로 나타났습니다.

* (예) OO증권은 수익성 81%, 건전성 9%, 정성 10% / OO저축은행은 수익성 100%

** (예) 전체 저축은행의 81.2%, 전체 보험사의 66.6%가 장기 평가지표 부재

- 이와 같이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지속될 경우, 장기적 관점의 경영활동이 저해되고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

【주요 검사 지적 사례】

- ◆ (OO은행) 프로젝트금융(PF) 대출 등을 취급하는 IB본부의 성과평가지표(KPI)를 설정함에 있어,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성 지표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고, 신용위험 등 관련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 수익성 위주 지표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영업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- ◆ (OO보험)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지표를 ROE 50%, 시장점유율(M/S) 순위 30%, 주주 수익률 등 단기 실적 또는 단기 수익성 지표 위주로 구성하여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

Ⅲ. 향후 계획

- 금융회사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고
 - 이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성과보수체계의 수립 및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- 이에 금융당국은 금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.

주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중점 점검 기본 방향(예시)

- ① 부동산PF 등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(보증기간, 계약기간 등)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여부
- ② 지급시점의 성과 변동 및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·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을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
- ③ 실제 조정·환수 가능사유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예정액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
 - * 성과보수 조정·환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